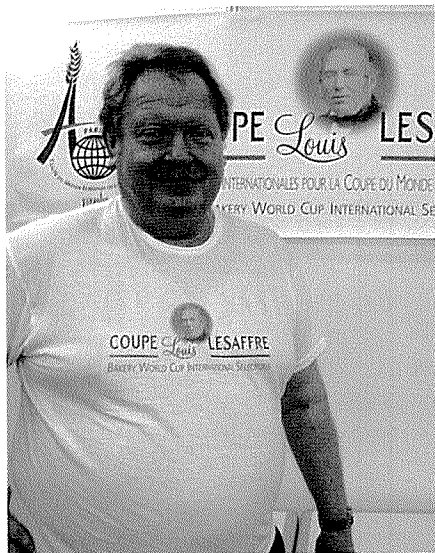


르사프르사(社) 이스트 비즈니스 담당 장-자크 쉘란느 씨

넉넉한 미소 속에 담긴 빵에 대한 사랑



“장-자크! 장-자크!” 싱가포르에서 열린 루이르사프르컵 대회장에서 주최측 진행 요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누군가를 열심히 부른다. 이들이 찾는 사람은 르

사프르사(社) 이스트 비즈니스 담당 장-자크 쉘란느(Jean-Jacques Semlagne) 씨. 르사프르의 중역인 쉘란느 씨는 경연 기간 내내 진행 요원들과 함께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며 대회 진행을 도왔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제대회에서 만능 해결사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한 그에게 루이르사프르컵은 회사가 주최하는 대회 이상의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이 대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제빵사는 멋진 직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요.”

프랑스에서 요리는 세련된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빵을 만드는 쉘프는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그는 프랑스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제빵사를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는 대회를 지켜보면서 “한국팀의 정확한 작업과 뛰어난 제품에 감탄했다”며 “한국도 제빵선진국으로 우뚝 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칭찬했다.

기업의 중역을 맡고 있지만 쉘란느 씨는 르사프르 직원들에게 업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는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이다. 이스트 비즈니스라는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정을 잃지 않는 그를 가리켜 르사프르 직원들은 “Il est très important!(그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린다.

빵에 관련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장-자크 쉘란느 씨. 그가 있기에 루이르사프르컵 대회가 더욱 빛났다.

글과 사진 · 허윤정 기자

(주)파리크라상 마케팅 담당 박인정 씨

그녀 손에 울고 웃는 매장



파리에 가면 파리의 향기가, 뉴욕에 가면 뉴욕의 향기가 느껴지게 마련. 파리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파리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 (주)파리크라상 직영사업본부 마케팅 담당 박인정 씨. 그녀 덕분에 파리크라상 매장은 언제나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프랑스를 담고 있다.

그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혹은 새로운 ‘파리’가 문을 열 때마다 매장 분위기를 책임지는 디스플레이어(Displayer)다. 그녀가 지닌 상상력의 크기에 따라 매장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한 박인정 씨는 4학년 때 ‘매장 디스플레이’를 배우면서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디스플레이의 매력에 푹 빠져 인생의 향로를 바꿨다. 그때부터 각종 참고 서적에 파묻혀 지내다시피 했고, 어쩌다 외국에 나갈 때면 백화점 소품 코너에 아예 붙어 살았다.

파리크라상의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지 이제 1년 반 남짓.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체과점 인테리어가 어렵다는 사실을 새록 새록 깨닫는다.

“체과점 디스플레이는 컬러와 소재 사용에 제약이 많아 정말 까다로워요. 트렌드에도 얼마나 민감한지 조금만 공부를 게을리해도 ‘촌스럽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즘 박인정 씨는 잇따른 매장 오픈으로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 선물포장을 배우고 있다. 시간이 좀 더 허락된다면 케이 크 데코레이션도 꼭 배워보고 싶다고. 소담한 체구의 그녀에게서 강단이 느껴지는 이유는 그녀가 지닌 일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덕분이다. **B**

글 · 김미선 기자 | 사진 · 주현진